

나주 수영장 지각 개장 빈축

市, 봄 개방 약속 못지키고 무더위 꺾이는 16일 문열어

나주시가 때늦게 수영장을 개장키로 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16일 나주 종합 스포츠파크내 실내수영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가 실내수영장을 불철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약속해 놓고 도 4개월이나 지난 여름철 더위가 한풀 꺾일 때인 4개월이 이달 중순에야 문을 연다고 밝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전남도 체육대회를 치르고 난 뒤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 시설물들에 대해 빠

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장하는 실내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수심 1.2m, 길이 25m짜리 6레인과 37m 풀장, 스피드 37m 를 갖추고 있다. 이용요금은 성인(월권)남 5만원·여 4만원·어린이 2만원, 성인(일권) 남녀 3000원, 어린이 1500원으로 책정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속한 개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전운영을 위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완벽한 운영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물에 비해 조금 늦게 개장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여·37·송월동)씨는 “방학기간에 수영을 가르칠 계획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방학과 여름철이 다 끝날 때가 돼서야 개장을 한다고 하니 다음 방학 때까지 미뤄야 할 것 같다”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사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무더위 속에도 빛나는 아름다움
관광객들이 지난 6일 강진군 대구면 청자박물관 잔디밭 광장에서 열린 화목(火木)기마작품 축적 경매장을 찾아 청자를 구입하고 있다. 이날 경매에서 ‘청자삼강문화문매병’이 경매 최고가인 400만원에 낙찰됐다. <강진군 제공>

‘장흥 물축제’ 경제효과 700억

강진 청자축제와 시너지...91만명 다녀가

장흥군이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에 91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탐진강 둔치에서 열린 물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모두 91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직·간접 경제효과를 7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특히 이번 물축제에서 얻은 운영 수익금 가운데 5천500만원을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세계 물기근 국가 어린이 식수지원사업에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또 이웃 자치단체인 강진군과 ‘물과 불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협약을 맺고 물축제와 강진청자축제를 공동으로 홍보하고 치러내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사례를 남겼다.

이번 축제는 ‘물과 숲, 휴(休)’라는 슬로건에 자연과 더불어 잘 지켜온 정남진의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춤추는 물결! 황금빛 여름!’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진행했다.

각종 풍성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탐진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남도의 대표 축제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승희기자 kykim@

기자노트

광주 광산구 송정지구 광산로 인근 상가 점주들이 났다. 상권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점주들이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광산로는 광주 송정역~송정파출소앞까지 1.3km 구간으로 송정지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광산문제로다”의 절박한 갈림길에 서게되면서 점주들은 활로를 모색하고 대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상가점주들은 상권활성화의 방안으로 ▲일방로 해제 ▲왕복 2차선 조성 ▲버스승객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뜻을 모으고, 수년 전부터 관계당국에 건의해오고 있지만 매년 공허한 메아리로

갈림길에 선 광산로 상인들

구도심권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근래들어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점주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소연하는 실정



기 원 태

특히 광산로 가운 데 백제약국 사거리~송정파출소 방면 구간의 상가 점주들은 2~3개월을 못 버티고 바뀌는 현상이 빚어지더니 최근에는 임대마저 원할치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세익스피어의 연극 ‘헬릿’의 대사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되 돌아 왔다. 관계당국은 지난해 ‘왕복 2차선 조성’을 위해 현장실사를 벌였지만 도로 너비가 약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상인 김모(70)씨는 “최근에도 두번이나 일방로 해제를 작리~송정파출소 방면 구간의 상가 점주들은 2~3개월을 못 버티고 바뀌는 현상이 빚어지더니 최근에는 임대마저 원할치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세익스피어의 연극 ‘헬릿’의 대사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나주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영유아 보육료 1100만원 횡령

나주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46·7급)씨가 지난 3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 영유아 보육료 11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7일 “동료 공무원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육료를 가로챈 혐의를 잡고 A씨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검찰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맡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어린이 집 2곳에 이중 지원된 536여만 원을 특정인 통장으로 반환받은 뒤 횡령한 혐의다. 문제의 돈은 아동 보육시설에 수용중인 일부 영유아의 지원금을 어린이집이 이중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돼 반환받은 것이다.

또한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 3

월까지 취학전 자녀를 둔 동료직원 6명 등에게 지원한 양육비가 중복 지급된 사실을 알고 회계과 계좌라고 속이고 반환할 것을 요구해 280여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불법 계좌로 입금 받은 A씨는 입금되면 다음날 인출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G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분납토록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한 공무원이 반향 과정에서 자녀의 학원비를 문제의 계좌에 잘못 입금하는 바람에 들쭉났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군, 여성 위한 ‘취업 교실’ 운영

화순군은 오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화순 군민 종합문화센터에서 임산·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취업·창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취·창업 교실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반 ▲예쁜 손글씨 자격증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군은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해 취업과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틀 갖춰간다

호텔·컨벤션 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 활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이 조성되면서 비즈니스 도시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군산시 오식도동에는 ㈜BGH가 300억 원을 들여 지상 13층(196실) 규모의 관광호텔신축에 들어갔고, 인근 군산산업전시관에는 컨벤션홀과 전시장 등을 갖춘 종합비즈니스센터가 2013년 완공된다.

또 비응도동에는 민자 유치로 통해 10층 규모(450실)의 호텔형 콘도와 아쿠아리움, 테마상가 등을 갖춘 종합양양지 개발이 2014년 시작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임대·일반 아파트(2500여 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다.

건축심의가 진행중인 오식도동 임대주택단지에는 올해 11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착공될 예정이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윤재삼 기업지원부장은 “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로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 발효엑스포’ 국내 183개업체 참여

역대 최대규모...전년보다 25% 증가

오는 10월 20~24일 열리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엑스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업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7일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엑스포에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83개 국내 업체가 참여한다.

참가업체중 도내 식품업체가 127

개로 약 70%를 차지했고, 25개 업체는 새로 참가한다.

품목별로는 장류·절임류(24.4%)가 가장 많고 건강식품(19.8%), 젓갈류(1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복분자 스테이오스, 함초 소금, 곱들식기, 발효 메밀차, 발효마스크 팩 등 발효기술을 응

용한 식품이나 건강 생활용품이 처음 선보인다.

100개 안팎의 외국 참가 업체도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생명을 살리는 발효’를 주제로 지난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이 엑스포에는 연인원 43만 명이 다녀갔으며 총 430억 원여치의 구매 상담이 이뤄졌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연안 10년간 29만㎡ 매립

전북도는 정부의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군산 연안 29만㎡가 연차적으로 매립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까지 매립되는 곳은 ▲군산

시 옥도면 개야도리 ▲말도리 어항시설(2만7000㎡) ▲경양동 공공시설(16만8000㎡), ▲옥도면 신시도 마리나 향만시설(9만2000㎡) 등 4곳이다.

전북도는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 용역의 용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뒤 매립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초 13곳에 걸쳐 159만㎡의 매립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8%만 허용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익기자 nogusu@

“채석강 지질학습장 보러 오세요”

변산반도국립공원 11월까지 탐구교실 운영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부안군 변산면 ‘채석범주’에서 올해 11월까지 지질학습장을 운영한다.

‘채석범주’는 채석강과 적벽강 일대를 통칭하는 말로 자연미가 뛰어나 지난 2004년도 국가명승 제13호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3대 암석(퇴적암, 화산암, 변성암)과 단층, 화석 등을 직접 탐구·조사할 수 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체계적인 탐

구·조사활동을 위해 지난 3월 전북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채석범주의 지질학습장 운영과 같은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질학습장은 해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매일 운영시간이 변동되므로 참가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063-584-8186)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밤에 떠나는 전주 한옥 여행
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마련한 ‘한옥마을 여름 야간 여행’에 관광객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후 7시에 경기전을 출발해 전통성당과 은평로, 오목대, 남천교 등을 둘러본다. <전주시 제공>

전북

단신

남원 선관위, 재선거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 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남원시 선관위는 지난 5일 92명으로 구성된 선거법위 특별감사위원을 지정하고, 선거법위 위

김제소방서, 봉월 연리마을서 소방안전 점검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지난 4일 소방공무원과 김제보건의소, 의용소방대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산면 봉월리 연리 마을을 방문해 ‘119안전복지 서비스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구급함 설치, 노후 전기시설 보수, 화재경보기 설치 등 소방안전 점검과 함께 생필품 지원과 환경정리 등을 실시했다.

김화성 김제소방서장은 “현재 운영중인 ‘119안전 서비스의 날’을 계기로 사회안전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으로 삼아 사고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순창군 노후설계 협의체 구축 MOU

순창군은 지난 3일 노후교량사회연구소, 전북대 평생교육원, 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와 함께 ‘2011년 순창 노후설계 교육’을 협력해 추진키로 MOU를 체결했다.

순창군과 노후연구소 등 4개 기관은 노후설계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개 과정의 교육과 감사진 협

완주 한지부채, 대구 세계육상대회장 납품

‘완주 한지부채’ 5만 개가 27일 개막하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용으로 쓰인다.

이들 부채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머리에 썼던 월계관을 상징

한 모양이며 한지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납품된 부채는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객에게 무료로 지급돼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